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주거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use of upper class residence
in the Yi dynasty

- On the basis of rites of passage -

김	주	야*
Kin	Joo	Ya
백	영	흠**
Baek	Young	Houm
윤	재	웅***
Yoon	Jae	Wo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bout the traditional life and consciousness of the Yi dynasty used its residence as the place where rites of passage were held. This study is trying to classify the rites of passage according to the procedures by which those rituals are being held and to analyze them based upon the space where rituals take place.

The results of research and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ly used area in the house as a variety of ceremonies were held includes SARANGBANG and DAECHUNG belonging to SARANGCHE and ANBANG and DAECHUNG that belong to ANCHE. So naturally these areas are located in the main space of the house.

2. ANMADANG as well as SARANGMADANG was used as the main walkway in the house and as the main place for the ceremonies such as marriage and funeral. MADANG space in the house played a semi-indoor-space role and performed the functions which limited indoor space couldn't carry out when ceremonies took place.

3. It seems that SADANG had not been utilized in the daily routine but located within the residence due to the ritualism.

* 호성여대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 대구대 주생활학과 교수

*** 호성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1.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생활에 있어서는 예를 증시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의례생활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통과의례는 비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의례의식들은 모두가 주거공간내에서 행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의 형성에도 통과의례의 영향으로 이러한 의례의식 수행을 위한 공간의 분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과의례를 살펴 봄으로써 의례행위에 따른 한국 전통 주거내에서의 주생활 공간 이용 방법을 고찰하고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생활과 공간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통과의례에 따라 연출되어지는 공간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전통적 주생활과 주의식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생활은 크게 일상적 생활과 비일상적 생활로 분류 할수있다. 이러한 비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주거공간의 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과의례를 각유형별로 분류하여 각의례가 주거공간내에서 어떻게 행해지며 어떤장소에서 행해지는가를 절차에 따라 살펴 보았다. 이를위하여 연구의 물적대상으로서 전통상류주택의 형태가 잘보존되어 있고 우리의 전통적 의례생활을 잘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경북 봉화군내의 12개 주택이 선정되었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문헌이나 보고서를

통하여 통과의례 및 무속신앙 등에 관한 자료들을 파악한 후 조사대상 지역에서의 의례 생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조사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의례생활에 관한 조사 사항등의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에 의해 작성된 주택의 평면과 설문지를 가지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주택의 집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 대담등을 통해 통과의례와 그에 따른 주거 공간의 이용을 조사하여 직접기입, 녹음등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비조사 : 1992년 3월 7일

* 본 조사 : 1992년 5월 10일 - 8월 5일

* 보완조사 : 1992년 8월 12일 - 8월 28일

2. 통과의례와 주생활

2 - 1. 통과의례의 개념 및 유형

인간은 누구나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되는데 이들 하나 하나의 사건에서 의식이 행해진다. 이런 의식들은 개인이 어떤 명백한 지위에서 또 다른 지위로의 통과를 가능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통과의례다.

통과의례는 출생, 성년, 결혼, 회갑, 사망에 임했을때 등에 관한 의식으로서,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일어나는 생활의 혼란등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출생의례는 인간이 이세상에 태어나는 첫관문으로 우주밖에서 우주안으로 들어와 공간적 유형존재로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일생동안 겪어야 하는 과정 가운데 가

장먼저 맞이 하는 의례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백일이되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할수 있게된것을 축하하는 것이 백일 의례이며 아이가 태어나 처음맞이 하는 생일이 둘이다.

관례는 어린이에게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기위해 행하는 의식으로서 성대한 의식을행하며 가족의 일원이기만하던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재생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혼례는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의례이다. 혼례는 개인의 통과의례인 동시에 신랑신부 결합이 일어나는 통합의례로서 육례라하여 그절차를 나눌수 있다.

상례는 사람이 죽은 뒤에 행하여 지는 의례로서 임종에서 탈상으로 이루어지게된다. 이는 죽은 사람을 다루는 의례이므로 영혼을 취급하는 특색을 각고 있으며 육신을 떠난 영혼이 영의 세계에 들어 가는데 필요한 의례이다.

제례는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는 의례로서 유교의 영향으로 행해지고 이는 의례이다. 이는 다른의례에 비해 비교적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 있으며 그유형도 다양하다.

2 - 2 주생활과 의례

조선시대의 사상의 지배적인 주류로서 사회를 이끌어왔던 유교는 그중심 개념이 禮 라고 할수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의례는 유교이념을 시행하기위한 실천윤리로서 당시 유학자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주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의례의 보급과 더불어 가장 먼저 제도적 차원으로 강력하게 시행 되었던것이 사당공간의 설립으로서 의례생활을 위한 사당의 설립이 보편화되

어 사대부는 물론 일반 서민까지도 집을 지을 때 사당을 짓거나 壁龕을 설치하였다. 사당은 집안의 중심처이며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서 그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주택의 다른 부분도 形制가 결정되어졌다.

조선시대의 禮를 중시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관혼상제를 포함한 통과의례로서 이는 주거공간내에서 이루어 지게된다. 그러므로 주거가 단순한 물리적 기능을 하는것이 아니라 의례를 행하고 수용할수있는 기능까지도 포함한 공간이란 측면에서 볼때 통과의례는 주택의 배치형태 및 공간구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있다.

현재에까지도 이러한 통과의례들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어떤사상보다도 강력히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거생활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수있다.

3. 조사대상주택의 특성

3 - 1. 인문지리적 배경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봉화군은 울진군과 안동군에 인접해있으며 북쪽은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를 경계로 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봉화읍과 몰야, 춘양, 법전면 등 1읍 9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는 약 77,360이며 면적은 1199.75km²으로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이 전체의 85 %를 차지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이 높고 험한 산지로 되어있는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여름과 겨울이 다른지방보다 월등히 길어 사계절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같은 군내에서도 북쪽의 산간 지방과 봉화읍

을 중심으로한 남쪽분지는 연평균 3° C ~ 5° C의 기온차가 난다. 영동과 영남을 잇는 영동선 산업 철도와 태백시로 연결되는 국도가 봉화에서 안동 대구로 이어지는 교통망으로서, 이같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이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문화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여 고유의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 2. 배치 및 평면 구성

조선 중·후기에 건립된 상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마당이 위요감이 높은 口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1) 이러한 口자형주택은 특히 영남북부권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지역은 높은 산지로 된 산악지역으로서 주택은 대부분 산을 뒤로하여 자리 잡았으며 주택의 배치형태는 모두가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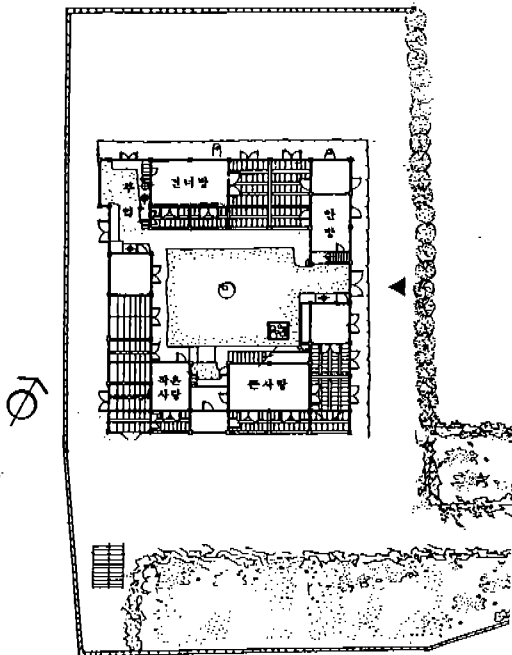
주거공간의 배치형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담장으로 둘러 쌓인 모든 건물과 공간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지방의 주택은 담장이나 부속건물이 소실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몸체의 구성만으로밖에 분석할 수가 없었는데 사랑채와 안채를 이루는 몸체의 구성은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완전한 口자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주택도 완전한 口자형이 10동이였다.

이러한 口자형 평면은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한채처럼 보이나 남녀 구별에 의한 분화가 잘된 주거 형태라고 볼수 있다. 앞쪽의 행랑채를 지나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대개 몇간의 사랑대청과 사랑방 침방등으로 구성되지만 규모가 큰 주택은 작은사랑 큰사랑이 따로 배치되기도 한다. 한채로 큰사랑과 작은사랑이 배치될때는 7자로 꺾이는곳에 대청을 두고 양쪽으로 사랑방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지역의 사랑채 유형은 홑집에서 겹집으로 발전하는 형태로서 대청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대개 사랑채는 바로 안채로 연결되게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 그리고 부엌이 각각의 방에 불게된다. 안채의 구성방식은 부엌 - 안방 - 대청 - 방의 연결 방식이 7자로 꺾인 구조인 경기형의 평면구조와 부엌 - 안방 - 대청 - 방이 일렬로 배치된 민가형(김종구家, 권정우家)으로 나누어볼수있다.

안채로의 출입은 각 종가의 경우 전면에서 사랑채 - 안채로 통하는 정면진입하는 수직적이고 상향적인 상징적 출입과정을 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의 경우는 중문을 통하거나 사랑마당의 측면이나 안마당을 통한 실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출입을 피하고 있다.

사당은 안채의 뒤에 별도로 한채로서 담장을 쌓고 다른공간보다 높게하여 그속에



<그림 3-1> 김호덕씨 주택 평면도

배치한다.

조사 주택의 안채, 사랑채 유형과 전체적인 배치형태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3-1> 조사 대상주택의 배치평면형태

주택	구분	안 채	사 랑 채	배 치
강 희직				
김 정진				
계원종택				
김 두순				
강 백기				
김 호덕				
남호구택				
서 철 당				
김 종구				
권 경우				
윤 창직				
장 공현				

4. 의례에 따른 공간이용

4 - 1 의례별공간이용

1. 관례시의 이용공간

관례는 어린사람에게 예를 통하여 어른으로 인정하게하는 사회적인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의례가 사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관례복을 갈아입는 곳으로는 대부분 큰사랑이 이용되며 관례의식에는 큰사랑이나 사랑마루가 이용되어진다. 그리고 의식이 끝난후 인사를하는 공간으로서 안방 사랑방 사당이 각각 이용된다.

남자들에게 행해지는 의례의 특성상 관례시 안채의 이용은 거의 없으며 부엌만이 하인들에 의해 이용되어질뿐이다. 다른의례에 비해 안채의 폐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표 4-1 > 관례시의 이용공간

공간		< N=12 >			
		의례	관례복 착용	관례 의식	손님접대 의식후 인사
사 랑 채	큰사랑	10	8	-	-
	작은사랑	2	-	-	-
	사랑마루	-	4	-	-
기 타	안방	-	-	12	-
	사랑 방 사당	-	-	-	12

2. 혼례

혼례는 안채내의 안마당이나 마루에서 행해지는데 의례시 안채의 폐쇄성이 약화되어 남자들이 안채내로 들어와 의례에 참가를 하게된다.

혼례전 신랑이 머무르는 곳으로는 사랑채가 이용되어졌으며 혼례의식은 대부분 안채내의 마당에서 이루어 졌다. 혼례가 행해진후 혼례자의 거처로 신랑은 모두가 큰사랑방에 머무르게되며 신부는 안채내의 안방이나 건넌방등의 각방을 이용한다.

< 표 4-2 > 혼례시의 이용공간

공간	의례 위	신랑의 준비		신부의 의식		혼례 주 거처		유예된 거처		음식 먹음		조이
		남자	여자	신랑	신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안 채	안 방	-	-	-	-	2	-	-	-	-	-	-
	옷 방	-	-	-	-	5	-	-	-	-	-	7
	건넌방	-	-	-	-	5	-	-	-	-	-	5
	마루	-	-	2	-	-	-	-	-	-	-	-
	마당	-	-	10	-	-	-	-	-	-	-	-
	안채전공간	-	-	-	-	-	-	12	-	-	12	-
사 랑 채	큰사랑방	7	-	-	-	12	-	-	-	-	-	-
	작은사랑방	5	-	-	-	-	-	-	-	-	-	-
	사랑방, 마루	-	-	-	-	-	-	12	-	-	-	-
	사랑채 전공간	-	-	-	-	-	-	-	-	12	-	-

4. 상례시의 이용공간

상례시의 공간이용은 절차에 따라 공간의 이용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임종시, 초혼을 부를 때에는 사랑채에 비해 안채의 이용도가 높으며 빈소를 차리거나 상여를 두는 곳 등의 사항에서는 사랑채가 이용된다. 집안식구들간에 행해지는 사항에서는 안채를 중심으로 의례가 행해지며 손님을 접대하거나 사회적인 성격을 띄는 의례에서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이용되며 문상객을 접대하는데 있어서 남녀간의 공간 분화, 상하 계층간에 따른 공간 분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 표 4 - 3 > 상례시의 이용공간

공간	의례	임종		사자방	초혼	문상객		상형	상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안 채	안 방	-	5	-	-	-	-	-	-
	중 방	-	2	-	-	-	-	-	-
	상 방	-	5	-	-	-	-	-	-
	마루	-	-	-	1	-	-	-	-
	지붕	-	-	-	4	-	-	-	-
	안채	-	-	-	-	12	-	-	-
사 랑 채	큰사랑	5	-	-	-	-	-	7	-
	작은사랑	7	-	-	-	-	-	-	-
	마루	-	-	-	-	-	-	5	-
	마당	-	-	-	-	-	-	-	6
	사랑채	-	-	-	-	12	-	-	-
기 타	대문밖	-	-	7	1	-	-	-	6
	사당지붕	-	-	-	4	-	-	-	-

3. 제례시의 이용공간

제례시에는 사랑채 안채의 기능이 분리되어져서 사랑채는 의례의 주공간으로서 의례행위가 행해지며 안채는 그 보조적 공간으로서 음식을 만들거나 안손님이 머무르는 장소로 이용된다. 집안에 따른 안사람의 제사 참석 유무에 따라 그 기능과 공간의 분리는 차이가 있다.

여자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는 절대적으로서 안채는 안사람만이 이용하고 사랑채로의 출입이 전혀 행해지지 않으며 여자가 재배를 하는 강백기, 금창직주택에서는 일시적으로 안채 -- 사랑채로의 출입이 이루어지며 제사상을 안마루에 보관하기도 한다.

< 표 4-4 > 제례시의 이용 공간

공간	의례 위	제사준비		제사차림	식사		제사후음	정기	정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안 채	안 방	-	12	-	-	12	-	7	-
	안마루	-	-	-	-	-	-	5	4
	고 방	-	-	-	-	-	-	-	2
사 랑 채	큰사랑방	12	-	8	-	-	-	-	2
	사랑마루	-	-	4	-	-	-	-	-
	사랑채	-	-	-	12	-	12	-	-
기타	사랑	-	-	-	-	-	-	-	4

5. 기타의례시의 이용공간

출생의례시의 공간이용은 전체적으로는 급줄을 통해 주거공간을 일시적으로 사회와 분리시키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주거공간은 성역시 되어진다. 주거공간내의 각공간의 이용은 안채가 출생의례의 주요 공간으로 이용되어 의례행위는 안채내에서 이루어지며 사랑채의 이용은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례시 보조적 기능으로서 이용되어진다.

백일, 돌 의례는 아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의례로서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므로 백일, 돌의례시에는 바깥사

람도 안채내에서 안사람들과 함께 의례에 참가하며 일시적이거나 안채가 개방되어지고 아이로 인하여 안채의 폐쇄성이 약화

된다. 그러나 의례가 끝남과 동시에 남녀는 각각의 공간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된다.

< 표 4-5 > 기타의례시의 이용공간

N = 12

행위 공간	출생								백일 · 돌					
	평상시	출산 시	삼신상 차립	금줄	아이 있는 곳	남자의 거처		백일상	돌상	돌잡이	식사		선물 보관	
						시루	남편				남자	여자		
안 채	안 방	1	9	12	-	12	1	-	11	11	10	-	12	12
	웃 방	5	3	-	-	-	-	-	-	-	-	-	-	-
	건너방	6	-	-	-	-	-	-	-	-	-	-	-	-
	안마루	-	-	-	-	-	1	-	-	-	-	-	-	-
사랑 채	큰사랑방	-	-	-	-	-	10	-	1	1	2	12	-	-
	사랑채	-	-	-	-	-	-	12	-	-	-	-	-	-
기타	대문	-	-	-	12	-	-	-	-	-	-	-	-	-

4 - 2. 각 공간별 의례행위 분석

주거공간을 안채와 사랑채공간 그리고 기타공간으로 나누어 공간별로 행해지는 각각의 의례를 분석하였다.

1. 안채

안채공간은 각 의례와 절차에 따라 그 이용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안채내의 안방공간은 출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례시 임종을 맞이하는 곳으로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안방은 관례시에도 관례자에 의해 이용되어지며 혼례시 신부의 거처지로 이용된다. 백일, 돌의례시의 돌잡이를 비롯한 모든행위는 안방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의례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등의 장소로 이용되어진다. 안방은 안채공간중 가장이용도가 높으며 안채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례는 안방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안채의 대청은 혼례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혼례식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제례시 사용되는 안채내의 안방이나 안마루에 대부

분 보관된다. 혼례식은 안마루나 안마당에서 행하는데 이때의 안채공간은 안방을 비롯한 각방과 마루 마당이 모두 한 공간이 된다. 또한 상례시에는 안채공간의 뒷마당까지도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공간으로서 이용되어지며 안방을 비롯한 각 방과 대청, 마당이 문상객의 접대에 이용된다.

그러므로 각 의례시의 안채의 이용은 각각의 의례 절차에 따라 각공간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서 이용되어지며 그중 안방이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안채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대부분이 안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손님접대나 혼례시 혼례식등의 경우에는 안채의 모든공간이 확장 통합되어져서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2. 사랑채

사랑채는 관례, 상례, 제례 등 각 의례의 중요한 부분들이 행해지는 공간이다. 사랑방은 각의례가 행해지는 중심공간으로서 관례의 대부분이 여기서 행해지는데 관례자가 관복을 갈아입거나 관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이용되어진다. 또한 혼례시

신랑의 혼례전의 준비공간과 혼례후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이용되며 상례시에는 임종을 맞이하고 상청을 차리는 장소가 된다. 사랑방은 제례시 제사상을 차리는 곳으로 이용되는데 제사용품의 보관에도 이용되며 사랑방을 중심으로 하여 대청과 마당공간이 의례후의 손님접대나 식사공간으로서 사랑채 전체가 이용되어진다.

대청 또한 관례의식이 행해지며 상청을 차리거나 제사상을 차리는 공간으로서 사랑방과 연결되어져서 이용된다.

의례시 사랑채의 각공간들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채 전체가 이용되어지는데 사랑방은 대청공간으로 연결되어지며 대청은 다시 마당과 연결되어 의례에 따라 하나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3. 기타공간

안채와 사랑채를 제외한 주거공간은 의례의 중요한 부분들을 행하는 장소로서 이용되는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당공간은 의례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공간으로서 관례시에는 관례의식이 끝난후 관례자가 조상에게 인사를 고하는 장소가 된다. 상례시에는 사당의 지붕이 초혼을 부르는 곳으로 이용되며 사당은 제사용품의 보관에도 이용된다. 사당은 이밖의 모든 의례에 이용되어지며 의례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공간내에 자리하게된 공간이다.

상례시에는 대문밖의 공간까지도 이용되어지는데 사자밥을 두거나 초혼을 부르는 곳, 상여를 두는곳으로서 주택의 내부공간과 연결되어서 이용된다. 또한 대문은 출생의례시 금줄을 치는 곳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결 론

본 논문은 주거공간의 이용을 조사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각종의례가 행해질때의 중심공간은 사랑채내의 사랑방과 대청, 안채재의 안방과 대청으로서 이들공간이 주거공간내에서 이용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이들공간이 평면구성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안채에 비해 사회적인 성격을 띤 사랑채가 주택의 내외공간을 분리시키는 매개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안채는 이에대한 보조적공간으로서 이용되었다.

2.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내 외부공간의 주통로로 이용되어질뿐 아니라 안마당은 혼례, 상례시의 주이동공간으로서 이용되어진다.

또한 주거의 마당공간은 의례행사시 한정된 내부공간이 수행치 못하는 내부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반내부공간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되었다. 특히 이를 위하여 중정식의 마당공간을 만들어 정원을 조성하지 않고 내부공간의 연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의례행사시의 한정된 공간에 대한 제약성을 이러한 융통성으로 해결하여 공간을 이용하였다.

3. 대청전면을 마당을 향하여 개방시킨 점과 대청과 방사이에 들어 열개문을 설치한점 등은 의례행사시 공간을 확장 연결하여 사용하기위한 공간 구성법으로 볼수있다.

4. 전통상류주택의 일상생활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사당공간이 주거공간내에 위치하게 된것은 의례생활에 기인한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택의배치평면에도 영향을 끼쳐 의례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당의 위치

가 맨먼저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정침의 동쪽이나 동북쪽 방향에 배치하였다.

참고 문헌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2. 김광운, 한국의 주거 민속지, 민음사, 1988
3. 김용숙, 한국여속사, 민음사, 1990
4.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 마을의 분파 형태와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1
5. 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연구, 연세대, 1991
6. 백영흠,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주생활 공간에 관한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창간호
7. 유희옥, 한국 주거에 관한연구, 성신여대, 1984

8. 이광규, 한국인의 일생,
9. 한국민속학 개설, 일조각, 1991
10. 이광규, 이 두헌,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11. 장철수, 정신문화문고 5,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정신문화 연구원
12. 전경수역, 통과 의례, 을유문화사, 1985
13. 주남철, 한국 주택 건축, 일지사, 1980
14. 이유미, 서울 근교 농촌주택의 의례생활과 공간사용에 관한연구, 연세대,
15.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성 및 의미에 관한연구, 한양대,
16. 최영기, 종가택 제례공간에 관한연구, 국민대, 19984
17. 최 일, 조선 중기 이후 남부 지방 중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18. 홍승재, 조선시대 건축과 예제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2
19. 홍형옥, 한국인의 생활의식이 전통적 한국주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